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2년부터 실시해온 김영인 문예공모가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질병관리본부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주관한 이번 문예공모에는 많은 감염인·환자·가족

들이 참여하였다. 문예공모의 참여를 통해 감염인들은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시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주(김영인·가명)씨의 '나무의자'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에는 서민행(김영인·가명)씨의 '나는 달린다'(수필)과 강노을(김영인·가명)씨의 '꿈꾸는 연필'(시)이, 가작에는 쌍애(김영인·가명)씨의 '사크릿 가든', 김민우(김영인·가명)씨의 '희망 하나 부여잡고'(이상 수필), 이길수(김영인·가명)씨의 '동송하초', 이석우(김영인·가명)씨의 '언어의 꿈'(이상 시)이 각각 선정되었다. 2006년 문예공모는 www.positive.or.kr에서 볼 수 있다.

나무의자

이 선 주

도로 건너편 은사시나무 아래
버려진 나무의자
힘 있게 버티고 섰을 다리 하나 못이 빠져
행인의 스침에도 빼걱댄다.

하늘을 바라보고, 숲을 갈망하며, 씨앗을 꿈꾸었던
참죽나무의 지난 바람들을
떨어지는 은사시나무 잎사귀들은 안다.
잘리고 깎인 심장에 못까지 박아 넣고서야
참죽나무는 나무의자가 되었다.

소용 있어 사랑받던 시간들을 수거해본들
참죽나무의 꿈들은 달을 수 없는 밤하늘의 별로 올려지고
나무의자의 기억들은 재활용쓰레기 더미들 속에서 추적댄다.
우단 투기된 음식물쓰레기 발아래 삭아가고
사위로 몰려든 비둘기들 배설해대는 환멸의 시공간.

못 아프던 나무의자
상처 품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도달한 지금 여기에서
오직 나무의자로의 재활을 소망할 때
붉게 녹슨 못 빠진 자리 바람이 울고 간다.

폐품 줍는 백발의 노파 가는귀로 흘러드는 울음
말리붙은 젓가슴에서 소실된 젖샘을 우비적대니
아들 같은 나무의자 아들처럼
노파의 몸이고 못이 된다.

나무의자 못을 몸에 박아 넣고 다시 나무의자 될 때
한 줌의 빛 스며드는 울창한 참죽나무 숲 속으로
노파의 리어카는 간다.

마른 하루를 침으로 불려 삼키던 노파, 나무의자에 몸을 얹는다.
아직, 온기가 올라온다.

나는 달린다

글 서민형 김영인·기명

2년 전 어느 여름, 나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HIV 양성반응이라는, 그저 이름만 알고 있었고, 전에도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에이즈 걸려”라는 장난을 몇 번 친 것 말고는, 이는 바보들은 바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거나, 무섭다거나 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내가 여기서 슬프고, 눈물도 흐르고, 부럽기도 해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냥 잠시 당황한 게 전부일 뿐, 무언가의 느낌도 없었다. 그냥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르고,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 떠났다. 그렇게 난 주위엔 가족들과 몇몇 사람들 외엔 어떠한 연락도, 만남도 갖지 않았다. 그냥 혼자 지내다시피 했다. 점점 추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온통 불규칙한 생활들이었고, 내 몸도 그것에 적응한 것 같았다. 외출할 일이 없었던 나로써, 혼자 생활할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다. 혼자 생

각하고, 혼자 단정 지으며 나 자신을 한탄하며, 비하하며, 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싫었고, 모든 게 재미 없었다. 한심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뒤적거리는 일이 전부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삼면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에 일어난 순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내 모습을 찾고 싶었다. ‘국제 직업 전문학교’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 기술을 배우면서 돈을 받는 곳이었는데, 그 곳에서 내 모습을 찾고, 날 일으켜줄 수 있을 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 일으키는 건 그 누구도 아니었다. 누군가를 의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내 의지가 부족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에게 도움만을 받으려 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불과 보름 만에, 난 다시 더 어두운 타락으로 빠지고 만다. 암흑, 그 자체였다. 더 이상 갈 곳도 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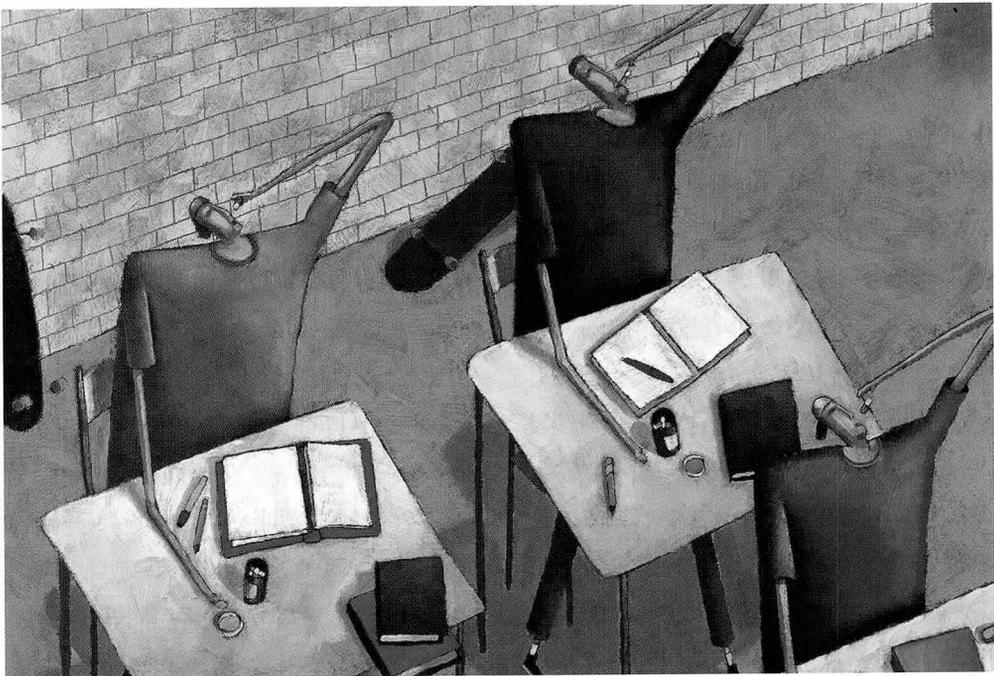
고 더 이상 손 내민 곳도 없었다. 가족들은 이런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해버렸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흘렀다. '보호관찰소'에서 만강제적인 제약이 들어왔다. 집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진 복지회관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몇 명 모아놓고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타락속으로 빠질 수도 없었고 더 이상 허망한 시간을 보낼 순 없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다. 원래 미러가 안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지만 견디낼 만 했다. 하지만 또 내 의지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이 몸에 배어버린 나에게 시간에 맞추는 것은 힘들

었다. 30분 동안 버스에서 오가는 것도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검정고시 점수를 위해 복지회관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점수를 위한 등본과 증명사진 2장을 주었다. 그러면서 결심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다음은 없다.' 꼭 열심히 다닌다는 약속을 받고 가셨다.

시험이 다가왔다. 시험장에 오기 전부터 계속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시험이 끝나고, 내가 적은 답과 답안지를 들고 답을 맞춰보았다. 합격이었다. 점수고 뭐고 다녀나서 합격이라는 소식은 너무나도 즐거웠고 행복한



소식이었다. 내가 드디어 뭔가 이뤄낸 것이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노는 게 좋아 학교를 그만뒀 버리고 2년 뒤, 당당하게 중학교 졸업장을 따낸 것이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도, 내 모습도, 내 마음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그 기쁨과 함께 조금씩 내 생활도 좋아졌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누군가를 좋아해보기도 하고, 싫어해보기도 하면서, '인생'이라는 것 또한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하고, 이별이라는 쓰디쓴 눈물도 삼켜야 했다. 그렇게 난 조금씩 내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목표가 생겼다. 이번엔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였다. 그러나 잠시 망실했다. '전의 검정고시도 쉽게 붙었으니 이번 검정고시도 쉽게 붙을 수 있겠지 뭐.' 하지만 달랐다. 수준도 달랐고, 이정도 의지로는 안 되었다. 첫 번째 도전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다. 처참한 결과였다. 하지만 나에게 기대를 해주고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위해 달렸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았던 의문점. 난 왜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았다. 답은 하나였다. 어루이 놓은 것도 없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가진 건 몸뚱아리뿐. 그것 말곤 더 이상 가진 것도 없었다. 희망도 없었고, 빛도 없었다. 그저 타라과 암흑 속에서 지내는 한심한 인

간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희망이 생기고 내 길이 점점 보였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다 보니,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 조금씩 신경 쓰였다. 슬프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얼질러진 불이었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단단히 마음먹기로 했다.

아는 형의 도움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비록 강한 의지도 아니었고 눈에 붙을 건 것도 아니었지만, 어렵사리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결국 합격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얻은 합격이었고,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비록 형편없는 수준의 점수였지만 어쨌거나 합격한 것이다. 내 목표는 합격이었지 성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큰 기쁨이었다.

HIV에 감염되었다는 슬픔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내가 피해를 끼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그냥 가벼운 병일뿐이다. 병원 잘 다니면서, 검사도 잘 받고, 건강관리도 잘 하면서...

치라니 잠시 잊으려고 한다. 나에게 다음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낄 여유는 없다. 또 한번 목표를 이루어 기쁨의 환희를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이 계속 생겼으면 좋겠다.

난 다시, 나 자신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난 발전할 것이다.

목표를 위해, 난 오늘도 달릴 것이다.